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새로운 조림 투자지 캄보디아]

No. 843 | 2012. 2. 1.

## 사기 극성... 분수림 계약 방식으로 해야



유정훈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2012년 1월 새해 벽두에 SK임업이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시엠립 지역에 총 150헥타르 규모의 시험림과 황폐지 복구림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이보다 훨씬 앞선 2009년 10월 22일 산림청은 캄보디아 산림청과 조림 투자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조림 투자 및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양해각서를 근거로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나라에 제주도보다 넓은 20만 헥타르의 조림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한국의 한화무역은 캄보디아 산림청과 분수림 계약을 체결, 캄보디아 크라체 주에 있는 3만4000헥타르의 조림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밖에 국내의 유수 목재 및 제지 관련 회사들이 캄보디아에서 조림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림업은 기존에 주로 카사바·자트로파 등 바이오 에너지 조림이나 최근 중국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고무 생산의 원재료가 되는 고무나무 생산이 주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목·제재목·제지목 등 산업 조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중략)

-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